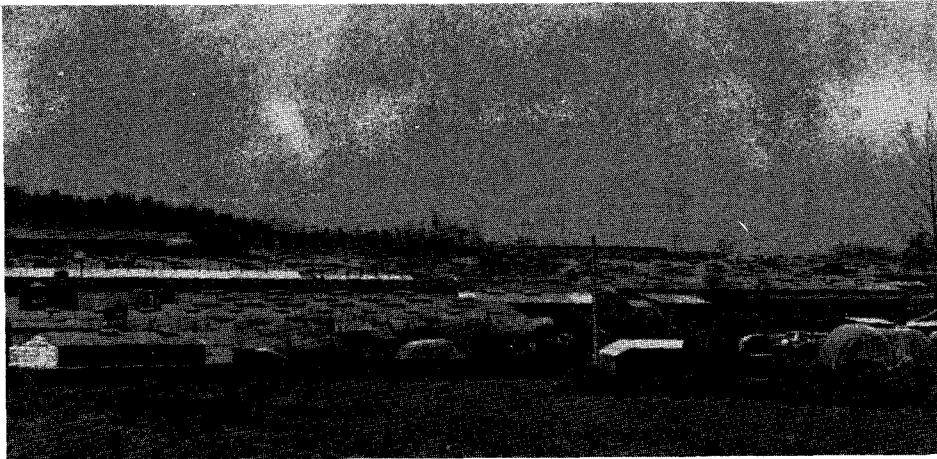


# 방역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올바른 실천이 필요



• 가산협동마을 전경

취재/김동진 기자

**최** 근 난가의 혼선이 잦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양계농가들은 대책을 강구한다기 보다 개인 의식이 팽대해져 양계산업 발전을 기하기 보다는 양계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 시키는게 현 실정이다.

금년초 전국적으로 양계

농가에 피해가 늘어나면서 질병, 사양관리, 영양 등 다방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지만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높았다는게 중론이다.

이번을 계기로 지역별 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찾아 일체감을 조성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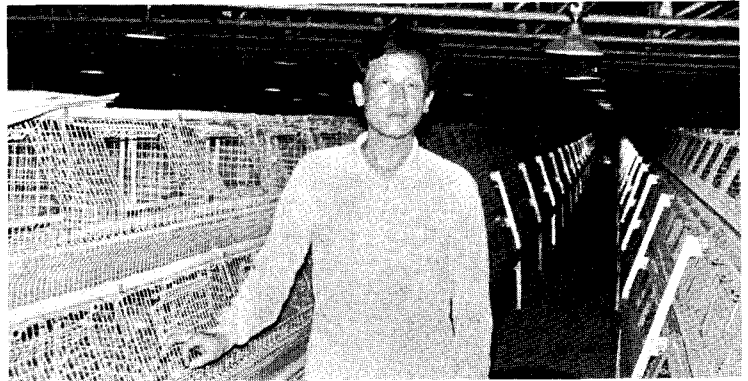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에 위치한 가산협동마을은 협동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양계단지로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다. '78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선린촌이 그린 벨트로 묶이면서 몇가구의 양계농가들이 이주해왔고 나머지 10가구정도가 뭉치면

서 총18가구가 상호 협동을 목적으로 양계단지를 조성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45°의 비탈에 단지가 조성되었는데 전에는 목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양계장 사이사이에 길들이 넓혀 있어 운송에는 별 지장이 없다. 전체농가중 대부분이 재래식 계사이며 한 농가가 직립식무창계사를 사용중에 있고 한 농가가 설치중이다.

시설자동화를 꾀하여 가산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나영대씨는 이중 한사람이다. 축산이 아닌 다른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후 부모님의 업을 이어가기란 쉬운일이 아니었지만 '89년에 본격적으로 양계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많은 문제점을 보완,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다.

총 1,500평 규모에 육성계사 200평, 산란계사 290평(직립식무창계사 신축중), 재래식 산란계사 200평 규모에 병아리 3만수와 산란계 9,500수가 사육되고 있다. 5월중에 무창계사 1동이 완공되고 재래식 산란계사도 무창계사로 신축되면 6



• 육추사내에서의 나영대 사장

만수규모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사료값 인상 등에 의해 원가절감하기가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해서라도 자동화시설로 전환해야 앞으로의 경쟁에서 헤쳐나가기라 봅니다.”며 나사장은 현실태를 털어 놓았다.

나사장은 모든 경영에 있어 치밀한 계획하에 양계장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가산협동마을은 품앗이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집단으로 몰려있는 양계단지이기에 계군간의 일령이 천차만별이라 소독과 방역을 게을리할 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되어 항상 모든 일에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

져야 함을 주지했다.

어머니 김순복씨가 '73년 처음 양계를 시작할 시 1,500수를 입추시킨 후 1,000마리의 폐사를 경험했는데 주인인이 온도, 환기 관리의 소홀이었기에 항상 그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다.

지난번 피해를 가져온 질병에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데는 나사장만의 비결이 있다. 나사장의 경우 입추 하루전에는 모든 입추 준비가 끝남을 원칙으로 하되 1주일전까지는 훈증소독(포르말린을 태움)을 통해 계사내부를 철저히 방역하고 있으며 연막소독기를 통해 수시로 계사 내·외부를 소독하여 병원균 침투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것인데 계사내부에 발판소독조

를 설치해 놓고는 있지만 사람들에 의한 전염이 여전히 문제가 되며 수시로 계분을 계분차에 의뢰하는 현 처리방법은 병원균의 침투를 더욱 부채질하기 때문에 자체 계분처리장을 만들어 완전 퇴비화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모든 입추준비가 끝나면 온도 32°C 이상, 습도 60% 이상을 유지시키고 조명을 밝게하여 사료와 물을 섭취하는데 지장없이 만들어준 후 표1과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 철저한 대책을 세운다.

나사장이 백신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음수접종을 스프레이 접종으로 전환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을 연구, 육성기술의 새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백신접종은 예방추

표1. 가산농장에서 실시하는 백신프로그램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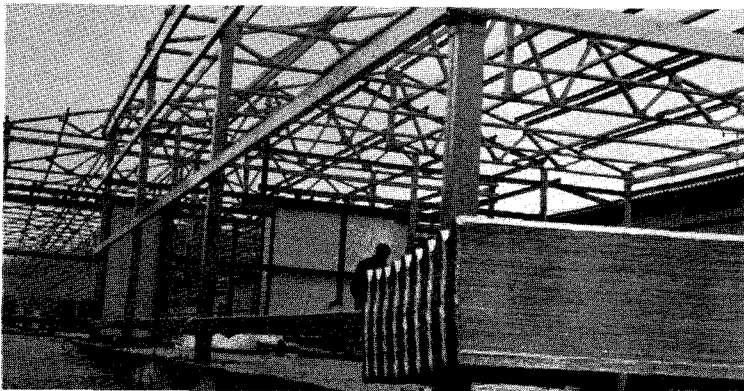
일령	병명	접종방법	비고	
1	IB,(ND)	Spray	ND의 경우 상황에 따라 실시	
14	ND <sub>B1</sub>	"		
21	ILT, IBD	접안, Spray		
33	ND Lasotar	Spray		
40	FP 2침	IM		
49	IB	Spray		
56	ILT 2차	접안		
63	ND Lasotar 또는 ND사독 0.5cc	Spray IM		
70	IB	Spray		산란계사로 이동 시작
98	AE	음수		
115	I,N,E oil	IM		

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생산성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지만 백신을 게을리하면 병에 의한 생산성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심한 질병을 겪어본 적이 없으나 ND가 살짝 지나간후 산란피크가 현저히 늦어짐을 경험했을

뿐이다. 육성기에 닭을 어떻게 육성시키느냐에 따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나사장의 경우 1주일 간격으로 체중을 파악하는 등 체중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료섭취가 과다하거나 부족하면 산란지속성이 떨어진다든지 지방계가 되어 산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탈항닭이 되는 등 육성기에 체중관리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이 번거롭다고 육성을 중추사육농가에게 위탁할 경우 계군이 고르지 않아 일년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추계약 사육을 할시에는 잘 아는 사람과 믿음을 갖고 혈청검사, 백신접종에 대



• 무창계사 설치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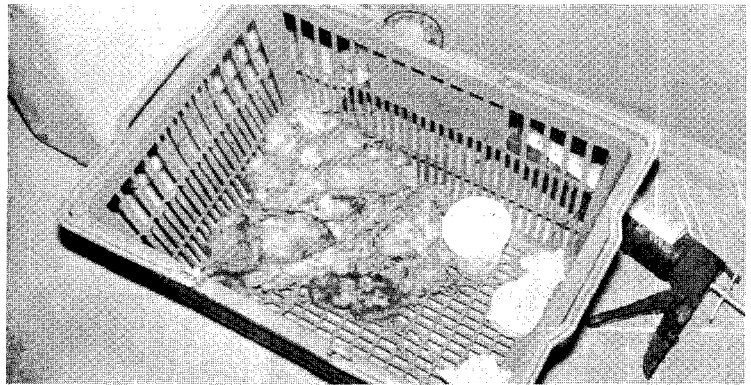
한 기록표를 첨부받아 거래를 해야함을 아울러 강조했다.

점등관리는 양계장에서 보통 16~17시간을 실시하는데 나사장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소 15시간만을 점등해도 생산성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사료섭취량 감소와 전력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산란시에는 한달에 한번씩 혈청검사를 통해 역가를 파악하여 질병에 대처하고 사료섭취량을 수시검사하여 계군상태를 살핀다. 산란피크 도달일령이 빠른 계군일수록 피크지속기간이 빨리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산란피크가 몇%인지 보다 산란지속기간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채란업은 가격변화에 따라 손익에 큰 변화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가절감에 눈을 돌려 부득이 무창계사를 설계중인데 재래식계사와 비교할 때 대란기준 개당 3원정도의 원가절감을 기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노계처분의 경우 청결한 계사를 유지하기 위해 all-



• 관리주의에도 불구하고 폐사가 속출하기도

out에 의한 출하를 실시하는데 수당 10~20원 덜 받더라도 계약조건에 의해 출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사장은 양계산업이 발전하려면 생산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의 보조가 더욱 절실한 때라고 보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얻으려 해도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애써 얻었다해도 미진하여 보조금을 목적에 쓰기란 상당히 힘들다 한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더라도 환경에 적응못하는 병아리들과 원인모를 이유로 폐사하는 성계들이 속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 더우기 시설을 바꾼 지 얼마안돼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더욱 필요할 때라 한시라도 농장에 소홀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생산성 저하 원인은 한가지가 아니고 질병, 사양관리, 영양 등 다방면에서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 충실한 관리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 대처해갈 수 있는 사양가의 자질이 중요하리라 본다.

나사장이 어려움을 극복해갈 수 있는 원동력은 시설을 위한 과감한 투자, 사양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 방역의 중요성 인식 등을 바탕으로 직접 닭들과 호흡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나사장은 오늘도 철저한 분석과 완벽한 방역대책으로 의지있게 미래를 설계해가고 있다. 양계